

청장 전상서·간식 준비… 남구 인사철 문화 ‘도마위’

익명 게시판에 ‘불공정’ 지적 직원, ‘소통vs부조리’ 갑론을박 남구 “글은 참고만… 공정 인사”

“인사철만 되면 직원들 대부분이 청장님께 올려야 할 편지를 쓰느라 고심이 이만저만 아니다”, “유별나게 남구만 불필요한 문화가 많은 것 같다”

광주시 남구에 ‘퇴직 육구’를 부르는 공식 사회의 부조리한 조직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작은 좋은 취지였어도 내용이 변질됐다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달 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주로 사용하는 행정전산망 ‘새울’의 익명게시판에는 “남구만의 ‘편지 인사’를 그만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남구 공무원들은 구청장에게 편지를 통해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개인 상황이나 고충을 토로하며 상담 하곤 했다. 특히 평소 구청장을 대면하기 어려운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이거나 젊은 공무원들에게는 중요한 소통의 창구 역할이 됐다.

하지만 이 문화가 인사를 앞두고 편지를 쓰지 않으면 안되는 문화로 전락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직원들이 구청장에게 편지를 쓴 뒤 승진을 하거나, 원하는 부서로 이동하는 등 ‘소원 수리’로 이용하는 일이 빈번해졌고, 한명 두명 따라하다 보니 인사를 앞두고 편지를 안 쓰면 이상한 상황까지 됐다는 것이다.

남구 소속 한 공무원은 “편지를 쓰기 싫은 사람도 주변 분위기를 의식해서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다”면서 “직원의 업무 성과만을 고려해야 할 인사에 공정성이 휘둘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남구에는 인사철 공무원들이 지켜야 하는 문화가 더 존재했다.

비슷한 시기 게시판에 ‘인사철 문화’라는 제목으로 “인사발령 때마다 부서이동 직원의 근무처에 간식을 사들고 인사 가는 문화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게시글에는 “간식 준비하며 인사 다니는 일이 하위직 직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는데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분위기 속에서 안 갈 수도 없는 직원들도 있다”며 “시보해제 기념 떡 문화가 없어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문화도 없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

다.

게시판에 이러한 글들이 잇따르자 직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인사철에 간식을 사들고 인사 가는 것을 두고 ‘먹을 것이 풍부해진 지금 시대에 인사로도 충분한 것 같다’, ‘불필요한 문화 같은데 유별나게 저희 남구만 그러는 것 같다’처럼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맛있는 것 먹어서 좋은데’, ‘사사건건 색안경 끼고 보면 세상이 온통 한가지 색깔로만 보인다’는 등 관습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었다.

특히 편지 문화가 사라질 경우 과거 구청장실 앞에 줄 서서 승진을 여쭙했던 문화가 부활할 수 있고 직급이 낮은 공무원들에게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남구는 인사 과정에 불공정하거나 불필요한 사유가 개입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전보는 한 근무지에서 최소 1년 6개월 이상을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등 기준을 두고 시스템화 하고 있으며, 승진 또한 승진 후보자 순위에 기초하며 경력과 업무 평가 등을 고려해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남구의 설명이다.

남구 관계자는 “개인의 고민사항이나 말하기 힘들었던 고충들을 토로하고 소통하며 더 나은 인사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몇몇 사례들이 직원들 사이에 퍼지며 다소 변질된 것은 사실이다”면서 “더 좋은 인사 차원에서 참고만 하고 있을 뿐 모든 내용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22일부터 2025 수능시험 원서접수

광주 고등 68개교·시교육청 등 “신분증 등 구비서류 확인 당부”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9월6일 오후 5시까지(휴일 제외) ‘2025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를 접수받는다.

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는 시교육청을 비롯해 방송통신고 등 지역 고등학교 68개교, 특수학교 6개교 등에서 할 수 있다. 광주지역 고3 재학생과 졸업생은 재학 중(출신)인 고교에서, 타 시·도 고교 졸업자·검정고시생·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시교육청 원서접수처에 접수하면 된다.

원서접수 시에는 △응시원서(접수처 비치)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cm×세로4.5cm) 2매(응시원서 부착용) △응시수수료(4개 영역 이하 3만7000원/5개 4만2000원/6개 4만7000원, 출신고등학교에서 접수하는 졸업생은 현금, 교육청 접수 시 일반신용카드 준비) △신분증 등을 준비해야 한다.

접수는 지원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특히 응시원서 접수확인서에 날인 또는

서명하기 전에 선택과목 등 입력내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타 시·도 고교 졸업자·검정고시생·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광주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한 접수일 기준으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등)본, 고교 졸업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 장애인복지카드, 필요에 따라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하므로 미리 꼼꼼히 확인한 후 접수해야 한다.

수험생이 원서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대리접수는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 수형자, 군복무자, 원서접수일 현재 입원 중인 환자 또는 해외거주자로 제한된다.

응시원서 작성, 접수, 변경은 원서접수기간에만 가능하다. 올해 수능시험은 오는 11월14일 치러지며, 성적은 12월6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11월18~22일



새학기 교과서 받는 학생들

광주지역 일부 초등학교 개학이 시작된 19일 북구 문정초교 3학년 학생들이 새학기 교과서를 받은 후 교실로 향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원서 접수한 곳에서 환불을 신청하면 된다.

2025학년도 수능시험 원서접수와 관련된 내용은 시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입시전형의 변화에

흔들리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믿음으로 남은 시간 꾸준히 목표와 계획을 실천하길 바란다”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능 시험을 위해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년도 광주지역 수능시험 지원자

는 재학생 1만1112명, 졸업생 4332명, 검정고시 등 645명 등 총 1만6089명이었다.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재학생이 소폭 감소하고, 졸업생(재수생, 반수생 포함)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주비 기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제조 및 A/S 문의 1544-1154